2016년 8월

계면활성제, 수출확대 & 신규용도개발 필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6년 8월
분량: 22페이지
가격: 22만원

화학경제연구원
Phone: +822 6124-6660
Fax: +822 6124-6669
consulting@chemlocus.com

상황1. 롯데케미칼, 공급부문 강점으로 시장지배

롯데케미칼은 2017년 EO 생산능력 18만톤 체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시장 가격결정력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LG화학, 한화토탈이 EO를 공급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롯데케미칼이 실질 거래가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주 원료인 EO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기업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하지만 공급기업들은 글로벌 MEG가격과 EO가격 변동을 고려해 EOA 가격을 예측하고 수급을 조절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상황2. 한농화성, KPX그린케미칼, 동남합성 국내시장 점유율 5년간 유지

국내 EOA 시장은 한농화성, KPX그린케미칼, 동남합성 등의 진입으로 과잉공급 상황이지만 공급기업간 일정한 Market Share를 유지하면서 최근 5년간 안정화 단계의 모습을 보였다.

전략: 1. 수출확대!

2. 콘크리트용, 화장품용 계면활성제 공급으로 시장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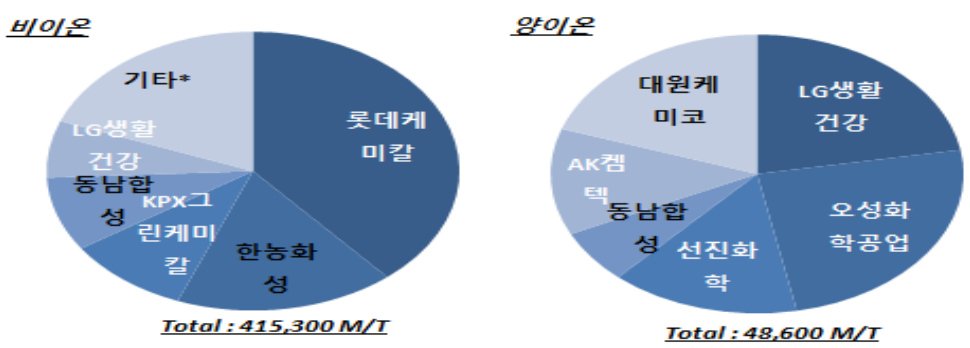
SOC 분야 혹은 고층빌딩이 밀집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계면활성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공급기업은 해당 시장을 타겟팅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교량 및 낙후도심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계면활성제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성장률 이상의 추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화학공업은 계면활성제의 신규용도 개발을 위해 화장품, 윤활유 등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화장품, 윤활유 등의 용도는 콘크리트 혼화제에 비해 수요량은 미미하나 기대 성장률은 높은 분야이다.

본 보고서는 계면활성제 공급기업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품별 계면활성제 시장점유율(2015)



Source) CMRI, 계면활성제 기업 경쟁력 분석(4개사)